

美 양돈산업 한국보다 생산성 좋고 생산비 낮아

1. 한국과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비 · 생산액 비교

한국과 미국의 양돈산업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우리 나라는 두당 생산비가 174,202원인데 반해 미국은 89,360원으로 미국의 생산비는 우리 나라의 51%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생산성 또한 우리나라 100을 기준으로 미국은 133으로 생산비 뿐만 아니라 생산성에서도 국내산을 크게 앞서고 있다.

사료곡물 비용의 경우에도 국내 사료곡물 평균가격은 kg당 0.21달러, 미국은 0.10달러이며, 배합사

료 비용은 국내 평균 0.37달러, 미국 0.27달러로 사료곡물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생산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낮은 생산비로 인한 낮은 판매가격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미국산 돼지고기가 수입되면 국내산 돼지고기는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이 한·미 FTA 발효 이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 방안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만 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표 1> 한국과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성 · 생산비 비교
(단위: 원)

국 가	한 국	미 국
생 산 비	174,202원 ¹⁾	89,360원 ²⁾
비율(%)	100%	51%
모돈두수	101만두	600만두
연간 출하두수	1,300만두	10,000만두
모돈 두당 출하두수	12.8두	17두
비 교	100	133

1) 2005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표
2) 캐나다 농무 · 농산식품부 자료(2003년 기준)

2. 한국과 미국의 수출입 현황

현재 우리 나라의 돼지고기 자급율은 73%이며 수출량을 극히 미미한 약 1,400톤으로 생산량의 0.2%에 그치고 있으며 이에 반해 특수 부위 선호 등으로 수입량은 지난해 수입량만 21만톤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의 돼지고기 자급률은 105%로 5%가 과잉 생산되고 있어 자국의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이 시급한 시점에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미국은 한국을 중점 시장으로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양돈산업 잠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 농무부는 '2016 농업전망 보고서'를 통해 10년후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228억6천800만파운드(약 1천37만3천톤)으로 지난해 대비 8.4%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량 역시 2016년에 204억9천600만파운드(약 929만7천톤)으로 06년 보다 7.4% 늘며 1인당 소비 지출액도 161달러로 15.8% 가량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는 등 공격적인 양돈산업 성장을 전망했다.

<표 2> 한국과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입 및 자급율

(단위: 천톤)

구 분	한 국 ¹⁾	미 국 ²⁾
국내 생산량	650.1	9,312
수 입 량	210.5	504
계	857.4	9,816
수 출 량	1.4	988
소 비 량	885.9 [*]	8,828
자 급 율	73%	105%

1) 농림부(2006년), P) 추정치, 2) USDA(2004년)

<표 3> 국내산과 미국산 돼지고기 가격비교(04년 기준)

(단위: US\$/kg)

구 분	공장도가격			소매 가격			
	미 국	한 국	비율(%)	미 국	한 국	비율(%)	
지 육 가격	1.62	3.34	206	-	-	-	
부 분 육	안 심	2.92	3.62	124	11.65	4.00	34
	등 심	2.90	3.42	118	6.78	3.80	56
	목 심	2.60	8.25	317	3.62	9.50	262
	후 지	2.81	3.04	108	2.76	3.50	127
	전 지	2.71	4.20	155	2.86	4.50	157
	삼겹살	3.03	10.45	345	3.78	12.00	317
	갈 비	3.17	6.31	199	-	-	-
	잡 육	-	2.45	-	-	-	-
	평 균	2.73	5.22	191	5.24	6.22	119

삼겹살 : 국내산(10.45\$), 미국산(3.03\$) → 345%

후 지 : 국내산(3.04\$), 미국산(2.81\$) → 108%

자 료 : 한국육류수출협회 양돈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질병없는 청정농장 내손으로 오늘부터